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2023년 추석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역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석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며 감사한 선물들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조신앙을 지닌 모든 사람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3절).

“오월 농부, 팔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추석(秋夕)에 사용하던 말로, ‘여름 동안의 땀 흘린 보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좋은 ‘추석’이라는 명절에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확과 풍성함을 주신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올해 추석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다시 대면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합니다”(4~5절).

우리는 물질, 지식, 건강, 관계에서 체험하는 부족함을 채우고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채웠다고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부족함 없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비로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 모두 하나가 된다면 더욱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쁨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와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6절).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낮을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치뿐만 아니라 ‘너’의 가치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 이면, 상대방도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서 모두 성취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나가는 말

2023년 추석을 맞으며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의 속에 선한 것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경배와찬양 7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빌립보서 1:3~6.....	가족 중에서
설교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해주시는 하나님.....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새563, 통411).....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해주시는 하나님

들어가는 말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생각이 끊이지 않는 나와 인류

를 여전히 사랑하며 마음에 두고 계실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내 속에 깊은 뿌리처럼 자리 잡은 생각은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기억하시고, 내 안에 선한 일을 이루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창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23:1~6.....	다같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새438, 통49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가족 중에서
설교	남은 인생 동안 일어나서 빛을 비추세요.....	설교자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새545, 통344).....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남은 인생 동안 일어나서 빛을 비추세요

들어가는 말

사랑하는 000가 우리의 길을 떠난 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가족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했던 000를 추모하는 이 시간이 예수

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빛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 소망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어둡고 더러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더러움과 어두움이 사회와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지저분하고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

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에도 우리 마음속 더러움과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밝게 청소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빛’이 되었다고 전파했습니다(요 1:4).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아 있는 생명은 모두 빛이신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1998년,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잔돈이 없어서 음료수를 사면서 잔돈을 바꾸었습니다. 한 손에는 잔돈을 쥐고, 한 손으로는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제 손에 있던 잔돈마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잔돈을 줌기 위해 쓰레기통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더러운 것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동전 700원을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러워

진 동전을 닦으면서 저는 죄로 더럽고 어두워진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밝고 깨끗하게 닦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빛을 비추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언제 어디서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마 5:16).

나가는 말

우리는 함께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왔던 사랑하는 000를 다시 기억합니다. 000의 생명 빛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빛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가족은 남아 있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